

# 급전대출 미끼 공짜 휴대전화 개통 '대포폰' 둔갑시켜 시중 유통

### 남부경찰, 1,500여 대 판매 셋 구속

납치·유괴·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이 '휴대전화 대출'이라는 수법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은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이를 '대포폰'으로 둔갑시켜 웃돈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켜 온 김모(27·인천시)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생활정보지에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29)씨 등 190여명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한 뒤 속칭 '대포폰' 1천 500여대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포폰을 개설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대당 5만~10만원씩을 주었으며, 이 휴대전화를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유통망을 통해 대당 19만~30만원씩 받고 팔아왔었다.

김씨 등은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료는 우리가 대납하고 3개월 뒤에는 정지시키겠다"고 속이고 1인당 10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설토록 요구해 '대포폰'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현행 제도상 통신요금을 내지 못한 통신불량자는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되지만, 신용불량자는 미납 통신요금이 없을 경우 소액 현금결제 가능하다는 이유를 대고 개통을 유도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폰'을 웃돈을 받고 판매해 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대포폰'을 통해 이용된 3억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해 통신 회사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판매책에게 넘어간 '대포폰'은 자신의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기 힘들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을 이용해 유괴나 금융 사기 등에 이용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아 불감지가 매우 어렵다"며 "대포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판매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반갑다 친구야” 방학도 즐겁지만 오랫동안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반갑다. 한달여 여름방학을 마치고 1일 등교한 광주 우산초교 어린이가 같은 반 짝꿍을 깨안으며 활짝 웃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 오현섭 시장 흥국사 방문

#### 종교 편향 기고문 사과

종교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고문을 기독교신문에 게재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오현섭 여주시장이 1일 여수에 있는 흥국사를 방문해 사과했

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흥국사를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2012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기독교 신문에 실은 데 대해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불교계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여주시 관계자가 전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불교계 종교 차별 규탄 장기화

### 불행위를 '대책위'로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불교계가 범불교도 대회 불행위원회회를 '대책위원회'로 보강, 상설 기구체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종교 차별에 대한 항의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키로 했다.

범불교도 대회 불행위원회의 대변인인 승원 스님은 1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3일 불교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원 스님은 삼보 스님이 종교 차별에 항의해 자해한 사건과 관련, “극단적인 행동 보다는 평화적이고 불교적인 방법으로 뜻을 표현해야 한다”

고 불자들에게 당부한 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불교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상생 평화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범불교도대회 다음날(대통령은) 뉴라이트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등 개탄스러운 일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교계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후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달말이나 내달초 대구·영남권을 필두로 부산지역, 전라·충청권 등 지역별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전국의 모든 승려가 참여하는 ‘승려대회’ 개최도 적극 검토해 항의를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승원 스님은 “지역별 불교도 대회에서부터는 불교도 뿐만 아니라 재야 및 시민 단체들과 제휴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꼬집는 사람과 연계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행뉴스

## 전남대병원 전공의 폭행 '물의를

### 과장이 뺨 때리고 욕설

#### 학교측 “보직 해임”

전남대병원 과장이 전공의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전남대학교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과장인 A(37) 교수는 지난달 24일 오전 병원 내 주차장에서 전공의 1년차 과정인 K(25)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세 차례 때렸다는 것. K씨는 이후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했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오른쪽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직후 A과장이 맡고 있는 진료 과목 전공의 12명은 “A 교수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병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 고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전공의들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진료와 응급실 당직, 논문작성, 잡무 등에 치여 눈을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욕설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도 이 과 전공의 1년 차 전공의 A 교수의 구타에 항의하며 일주일동안 업무를 이탈했다. 전공의들은 “당시 A 교수가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얼마안돼 폭행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의대생들과 달리 현장에서 실무를 다뤄야하는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주장중 일부는 과장된 것이 있으나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해

명했다. 전남대병원측 고위관계자도 “젊은 교수는 의욕이 너무 많았고, 전공의들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양측간에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고, 학교측에서도 A교수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공의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과 구시대적 교육방법이 통용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도 결국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들만 피해를 입지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전남대 의대 출신으로 해외 유명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고, 최근 병원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자신의 전공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추석 교통사고' 발생↓ 사상자↑

#### 도로교통공단 전망

#### 음주 사고도 늘 듯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는 덜 발생하지만 사상자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공개한 최근 5년(2003~2007년) 동안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두 1만1천7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70명이 숨지고 2만2천 22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 534.5건으로 2003~

2007년 전체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인 603건보다 11.4%나 적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의 일 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1천27명으로 최근 5년간 전체 평균인 972명보다 5.7% 많았다.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추석 연휴는 3.2명, 전체 평균은 3.0명으로 추석 때가 6.7% 더 높았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는 일 평균 87.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최근 5년간 전체 평균(77.4건)을 훨씬 상회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추석 연휴기간(4.1명)이 평상시(3.4명)보다 높았다.

연행뉴스

#### “기름 왜 싸게 팔아” 화염병 협박



“기름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주유소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가 여수지역 한 주유소에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여수시 학동 주유소 사무실 현관문 틈에서 ‘너희 주유소가 기름을 싸게 팔고 있다. 화염병 5개를 던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발견된 것.

○이 주유소 업무는 “지난 4월 개업 이후 인근 주유소 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당 20~30원 정도 싸게 팔아오자 인근 주유소 업체들이 가격을 협의해서 팔자고 사실상 담합을 요청해와 거부한 적이 있다”며 “협박 편지가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

○경찰은 업무의 진술과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필적, 쪽지에 남은 지문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김재윤 의원 사전 영장

#### 검찰, 알선수재 혐의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1일 결정했다. 18대 의원에게 회

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X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 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X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연행뉴스

최종은 건축·신규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공방 : 061) 337-0571

**최종은 건축**

1588-7507

061-515-7000

**신규주택**

100㎡ - 110㎡ 대지

100㎡ 400,000 매수 할/수 할/할

110㎡ 520,000 매수 할/수 할/할

**북문-제주발대리요**

100㎡ 98,000

110㎡ 110,000

120㎡ 119,000

**대원주택**

100㎡ 748,000

110㎡ 750,000

**신규주택**

100㎡ 1,000,000 ~ 1,100,000

110㎡ 1,000,000 ~ 1,150,000